

## 2022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표어

우리의 영 안에서 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이다.  
날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일어나야 한다.  
삼일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며,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영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사는 생활,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된다.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한다.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는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산물은  
하나님의 시(詩)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영원토록 공개적으로 전시될 것이다.

2022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 1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지대한 의미**

성경: 요 1:14, 16-17, 히 10:29, 뵤전 5:10, 엡 1:5-6, 2:7-8, 계 22:21

- I. 하나님의 은혜는 지대한 의미를 가진 문제이다 — 요 1:14, 16-17, 엡 2:7, 계 22:21.**
- A. 은혜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가장 큰 진리이자 가장 높은 계시이다 — 요 1:14, 16-17, 히 10:29, 고전 15:10, 빌 4:23, 계 22:21.
  - B. 우리가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신약 전체에 대한 분명한 조망이 필요하다.
- II. 신약에 따르면, 은혜는 사실상 우리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이다 — 요 1:16-17, 고후 12:9.**
- A. 은혜는 교리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상의 하나님이이다. 왜냐하면 은혜는 온 존재가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생명과 힘과 위로와 안식과 빛과 의와 거룩함과 능력과 그 밖의 신성한 속성들이 포함된다.
  - B. 은혜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고 우리의 체험이 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 고후 13:14.
  - C.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육체가 되신 삼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어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사신다 — 요 1:14, 16-17, 계 22:21.
- III. 은혜는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세 방면,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방면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 고후 13:14, 민 6:22-27, 시 36:8-9.**
- A. 은혜는 근원이신 아버지와 요소이신 아들과 적용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시는, 육체 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 고후 13:14.
    - 1. 은혜의 근원, 은혜의 요소, 은혜의 적용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신성한 삼일성의 세 위격에 속한 것이다 — 마 28:19.
    - 2. 신성한 분배 안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라 불리며, 그 영은 은혜의 영이라 불리신다 — 고전 15:10, 고후 1:12, 8:1, 9, 9:14, 12:9, 13:14, 히 10:29.
  - B. 은혜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분, 곧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하나님-사람이 되시어 인간 생활을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시다. 지금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 고전 15:45하, 6:17.
  - C.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 요 1:14, 16-17, 뵤전 5:10, 고후 13:14, 히 10:29, 고전 15:10, 45하, 계 22:21.
  - D.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실 수 없다 — 요 1:14, 고전 15:45하.

1.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며, 그 영은 은혜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 — 히 10:29.
2.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몫, 곧 은혜가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고후 13:14.

**IV.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 엡 1:6상.**

- A.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대상이 되도록,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받은 위치 안으로 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엡 1:6상.
  1. 우리가 은혜받은 위치에 있고 은혜의 대상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
  2.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 결국 상호 누림이 있게 되어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은 우리를 누리신다.
- B.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이 아들을 기쁘게 여기신다 — 마 3:17, 17:5.
  1.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 — 엡 1:6상.
  2. 그러한 대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신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 마 3:17, 17:5.

**V.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시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말한다.**

- A. 은혜는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 B. 에베소서는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 C.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되신다 — 고후 13:14.

**VI.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는데, 이것은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엡 1:5, 6하.**

- A. 영광은 표현되신 하나님이다(출 40:34).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 B.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분의 표현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즉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엡 1:5, 6하.

**VII.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실 것이다’ — 엡 2:7.**

- A.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 엡 2:7, 롬 2:4.
- B.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하여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 자신의 풍성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
- C. 오는 여러 시대, 곧 천년왕국과 영원 미래에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 주실 것이다 — 엡 2:7.

## 메시지 2

#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

성경: 엡 1:10, 3:9, 딤후 1:4, 갈 6:18, 고전 15:10, 뱌후 3:18상

- 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삼일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어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고, 그 결과 그들이 그분께 연결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고 점유되며,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실체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 실체는 그분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 엡 1:3-23.
- A.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 전체의 중심 노선이다 — 엡 1:10, 3:9.
  - B. 성경의 해석은 이 중심 노선에 의해, 이 중심 노선의 빛 비춤 아래 엄격하게 통제받아야 한다 — 눅 24:27, 32, 44.
  - C.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며 공급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다 — 딤후 1:4.
  - D.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삶이다 — 고후 5:14-15.
- II.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갈 6:18.
- A.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라는 것이다 — 갈 6:18.
    - 1. 그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초점이다 — 요 3:6, 롬 8:10, 15:29, 엡 1:3.
    - 2.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서 우리의 영과 함께한다 — 빌 1:19, 뱌후 4:22.
  - B.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사람의 영을 사용하여 누리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신)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다 — 요 1:14, 고전 15:45하, 뱌후 4:22, 몬 25.
    - 1. 은혜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재화되신 하나님 아버지이다. 궁극적으로 그 영께서 곧 은혜이시다 — 히 10:29.
    - 2.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인 이 은혜는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거한다 — 빌 4:23.
    - 3. 우리의 영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 뱌후 4:22.
    - 4.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머리와 왕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지위를 존중하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갈 6:18, 히 4:16.
  - C.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고후 13:14, 몬 25.
    - 1. 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이다 — 요 1:16, 계 22:21.
    - 2. 날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영을 받아들이어야 한다 — 갈 3:2-5, 요 3:34.
    - 3. 우리가 하늘에 속한 전달에 우리 자신을 열어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은혜의 영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길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 살전 5:16-18, 롬 10:12-13.

4.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그분과 유기적으로 점차 하나가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될 것이다 — 고후 1:12, 12:9.

III.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 고전 15:10.

- A.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세 번 언급된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고전 15:45), 우리가 부활 안에 살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부활 안에서 우리 안으로 이끄시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1.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요 1:17, 갈 2:21.
  2. 죄인들의 우두머리(딤후 1:15-16)인 다소의 사울이 가장 앞선 사도가 되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3. 이 은혜로 말미암은 바울의 사역과 생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 고후 1:12, 12:9.
- B.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이시라는 것, 곧 사도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보여 준다.
  1. 사도 바울을 밀어 내고 사도 안에서 운행했던 은혜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살아 계신 인격, 즉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사도 안에서 그의 모든 것으로서 사신 분이셨다.
  2.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바울의 선포와 일치한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a.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능력 주시는 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b.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IV.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십시오.” — 벧후 3:18상.

- A.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은혜로 자라는 것은 생명 공급의 이러한 내적 근원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 벧전 5:10.
- B. 은혜는 육체 되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하나님이다. 은혜의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와 하나 되도록 우리 안에 있다 — 빌 4:23.
  1. 은혜는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은혜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가하심으로 자라는 것이다 — 골 2:19.
  2.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어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영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은혜로 자라야 한다 — 계 22:21.

### 메시지 3

##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됨

성경: 요 1:16, 롬 12:6, 고전 1:2-4, 고후 13:14, 갈 6:18, 엡 4:7, 29, 빌 4:23, 계 22:21

- I.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사는 생활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이다 — 갈 6:18, 히 4:16, 계 22:21.
- A.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 은혜의 체험이어야 한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 소유하는 삶이다 — 고후 1:12.
  - B. 총체적인 생활은 우리의 생활 전체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삼일 하나님의 생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고후 13:14.
  - C. 복합되신 영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기쁨바름으로서 움직이시어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게 하신다 — 요일 2:20, 27.
  - D.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은혜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하신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삼일 하나님의 거처와 그릇이 되었다 — 히 10:29하, 갈 6:18, 빌 4:23, 몬 25, 딤후 4:22.
  - E.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은혜는 삼일 하나님, 곧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아버지와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아들이시다 — 고전 15:45하, 6:17.
  - F.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일상생활의 각 방면에 함께해야 한다 — 빌 4:23, 엡 4:7.
- II.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에 근거한다 — 고전 1:2-4.
- A.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은 교회의 영성이나 상태에 근거하지 않는다.
  - B. 하나님의 은혜만이 교회의 기반이다 — 고전 16:23.
  - C.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에 근거한 것이다.
  - D. 교회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기반 위에 서 있다 — 계 22:21.
  - E.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기반으로 받았고 이 은혜 위에 서 있으며, 우리의 속성이나 미덕이나 탁월함 위에 서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은혜, 심지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 요 1:16.
- III.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의 완결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이다 — 고전 12:12-13, 27, 엡 1:6-8, 22-23.
- A. 은혜는 순환하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교회생활 전체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순환인 은혜에 달려 있다 — 벰전 5:10, 행 4:33, 고후 8:1, 13:14.
  - B. 그리스도의 몸의 실지적인 생활과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적으로 누리는 데서 나온다 — 고전 1:9, 고후 13:14.
  - C.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각 부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 롬 12:4-6상.
  - D. 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결과이다 — 롬 12:6.

1. 이 은혜는 신성한 요소로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 요 1:16, 고후 13:14.
  2.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영적인 재능과 능력의 요소를 가져오고, 이러한 요소는 생명의 성장과 함께 생명의 은사들로 발전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 롬 12:6-8.
  3.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 은사가 은혜에 따라 다르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은혜는 은사에 따라 받은 것이다.
    - a. 은혜는 은사를 산출하고 공급하는 신성한 생명이다.
    - b.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를 산출하는 것은 바로 은혜이다. 그러므로 은사는 은혜에 따른 것이다.
    - c.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은혜가 은사에 따른 것, 곧 은사의 분량에 따른 것이다.
- E.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나쁜 말도 우리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한다 — 엡 4:29.
1.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는 말은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신 그리스도이다 — 고후 13:14, 롬 16:20, 고전 16:23, 갈 6:18.
  2. 다른 이들을 건축하는 말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 엡 4:29.

#### IV.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들을 위하여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한다 — 엡 5:30.

- A. 에베소서 3장 2절과 9절에서 바울은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를 사용한다. 9절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고, 2절에서는 사도의 청지기 직분을 가리킨다.
- B.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살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 엡 3:2-7.
  1.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 고전 4:1-2.
  2. 이 청지기 직분에서 사도의 사역이 시작되며, 사도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 고전 9:17.
  3. 바울의 사역은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믿는 이들이 누리도록 그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 엡 3:8.
  4.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그분 자신께 있는 것이지만,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단지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청지기 직분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다.
  5.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보편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있다 — 엡 3:2, 9.



메시지 4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

성경: 뵤전 1:2하, 10, 13, 2:19-20, 3:7, 4:10, 5:5, 10, 12, 뵤후 1:2, 3:18

- I.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 요 1:14, 16-17, 고후 1:8-9, 12, 갈 2:20, 비교 고평 15:10.
- II. 은혜의 번성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번성하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하며 넘친다 — 뵤전 1:2하, 뵤후 1:2, 요 1:16, 엡 1:6-8, 2:7, 롬 5:17, 21, 뵤전 1:14, 계 22:21.
  - A. 은혜는 우리의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한다.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는다 — 고후 12:7-9, 비교 1:12, 15.
  - B.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 엡 6:24, 요 21:15-17, 뵤전 1:8.
  - C.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은혜이신 주님을 누릴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의 말씀은 그분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모든 약속을 포함한다 — 행 20:32, 뵤후 1:4, 엡 6:17-18.
- III. 구약에 있는 신언자들은 우리가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했다 — 뵤전 1:10.
  - A. 구약의 신언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서의 고난들, 부활과 승천과 두 번째 오심과 왕으로서 다스림 안에서의 영광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신언자들에게 분명히 알려 주셨다 — 뵤전 1:5, 9-10, 비교 시 22편, 사 53장, 단 9:26.
  - B. 비록 그리스도의 영께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또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시대적으로 조성되셨을지라도(요 7:39, 롬 8:9-11), 그 영의 기능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영이시기 때문이다(히 9:14).
  - C. 영원한 기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의 신언자들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무한한 은혜가 되심으로써, 그들을 왕국 시대에 주님의 즐거움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즉 그들의 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관하여 구약의 신언자들에게 분명히 알려 주셨다 — 요 1:17, 히 10:29하, 뵤전 1:9, 마 25:21, 23.
  - D. 그리스도의 영은 두 가지 수단, 곧 구약의 신언자들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들의 전파에 의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은혜로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 뵤전 1:10-12, 비교 계 2:7상.
- IV. 믿는 이들이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 뵤전 1:13.
  - A.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는 혼의 구원을 가리키며, 이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다 — 뵤전 1:5, 9-10.

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 딤후 1:9, 딤후 2:11.
  2.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심으로 사람이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셨다 — 요 1:1, 14, 16-17.
  3.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내주하시는 영으로 완결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하시는 은혜의 영이 되셨다 — 고전 15:45하, 고후 3:17, 히 10:29하, 갈 6:18, 빌 4:23.
- B.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하며, 이 은혜에다 우리의 소망을 완전하고도 온전히 두어야 한다 — 롬 5:17, 뱀전 1:13.

**V.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동기 부여와 우리의 생활에 나타난 이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킨다. 그러한 표현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은혜롭고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

- A.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인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동기 부여와 외적인 표현이 된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갖는 법, 즉 은혜를 취하고 은혜를 소유하며 은혜를 사용하고 은혜를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히 12:28.
- B. 우리가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누린,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교회의 집회들에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표현되신다 — 행 11:23.
- C.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따라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관이 되기 위한 것이다 — 뱀전 2:20-21.

**VI. 생명의 은혜는 믿는 이가 강하든 약하든 모든 믿는 이의 유업이다 — 뱀전 3:7.**

- A. 생명의 은혜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삼일성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생명의 통로이신 아들, 생명의 흐름이신 그 영이며, 그 영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서 흐르시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다 — 요일 5:11-12, 요 7:38-39, 계 22:1.
- B.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고, 생명의 은혜를 담는 그릇들이다 — 뱀전 3:7, 엡 1:14, 고후 4:7.

**VII.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가리킨다 — 뱀전 4:10.**

- A.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생명의 풍성한 공급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 안으로 공급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고후 13:14, 12:9.
- B.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인 은혜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해야 한다 — 뱀전 4:10-11, 눅 4:22, 엡 3:2, 4:29.

**VIII.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이들은 대적하신다 — 뱀전 5:5.**

- A.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맴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 — 비교 요 13:3-5.

- B. 겸손은 모든 종류의 과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지만, 교만은 우리를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든다 — 약 4:6, 시 138:6, 잠 29:23.
- C.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하며, 우리의 일생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이다 — 벰전 5:5-7, 비교 시 55:22.

IX.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에서 믿는 이들을 부르신 분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서, 믿는 이들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야 한다 — 벰전 5:10, 12.

X. 믿는 이들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은혜, 곧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으로써,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의 날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결론의 말로서, 베드로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된 것임을 가리킨다 — 벰후 3:18.

메시지 5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하나님의 시,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됨

성경: 롬 5:17, 21, 요 1:16, 히 4:16, 창 6:8, 계 22:21

I.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은혜 위에 은혜로, 즉 넘치는 은혜로 받아들여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 요 1:16, 롬 5:17, 21.

A.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 히 4:16.

1. 의심할 것 없이 여기 언급된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다(계 4:2).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에 대한 권위의 보좌이다(단 7:9, 계 5:1). 그러나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며,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 덮개(시온좌, 출 25:17, 21, 시 80:1)로 상징되었다. 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이기도 하다(계 22:1).

2.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양, 곧 그리스도의 보좌로 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언급된 우리의 영이다.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롬 8:34) 바로 그분은 또한 지금 우리 안에(롬 8:10),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엡 2:22)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딤후 4:22).

3.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곧 하늘의 문인 벤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시는 사다리이다(창 28:12-17, 요 1:51).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B. 주님 자신이 영광의 보좌이시자 은혜의 보좌이시다(사 22:23, 히 4:16). 우리가 은혜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허락할 때, 은혜가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겔 1:22, 26)로서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다(롬 5:17, 21).

II. 창세기가 기록된 주된 목적은 타락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A.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가 살고 있던 부패한 시대의 참된 상황을 보여 주셨다 — 창 6:3, 5, 11, 13, 마 24:37-39, 딤후 3:1-3.

1. 사람은 결국 전 존재가 육체가 될 정도로 타락했다(창 6:3). 하나님의 가장 강하고도 사악한 원수는 우리의 육체이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철저히 미워하시는 것이다.

2. 구약에서 아말렉은 타락한 옛사람의 총체인 육체의 예표이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육체와 그 영의 다툼을 묘사한다 — 출 17:8-16, 갈 5:16-17.

- a.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계속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미워하시고 육체를 근절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 출 17:16, 갈 5:17.
  - b. 육체는 바뀌거나 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롬 13:14, 갈 5:16.
  - c. 하나님은 사탄을 미워하시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육체를 미워하시며, 사탄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육체를 멸하기를 원하신다 — 출 17:16, 신 25:17-19, 삼상 15:2-3.
  - d. 우리는 중보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싸우시는 영에 의해 아말렉에 대해 싸운다.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 모세는 하늘들에서 중보기도하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아말렉에 대해 싸운 여호수아는 육체와 맞서 싸우시는 내주하시는 영의 예표이다 — 출 17:9, 11, 13, 롬 8:34, 히 7:25, 갈 5:17.
  - e.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중보기도하시는 그리스도(롬 8:34)와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싸우시는 영과 하나 되기 위하여 육체를 죽음에 넘김으로써 주님과 동역해야 한다(눅 18:1, 살전 5:17, 롬 8:13, 갈 5:16-17, 24).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서 육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없애 버리실 때까지 육체와 지속적으로 싸우시겠다는 뜻을 정하셨다(출 17:14).
- B.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은혜)을 입었다.”라고 말한다.
1. 육체는 사탄의 걸작품으로서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집회 장소’이다. 은혜는 우리가 누린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가 육체의 상황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다.
  2. 육체는 바로 사탄의 임재이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가 사탄의 임재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3. 사탄이 있는 힘을 다하여 상황을 손상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 — 비교 단 1:8, 9:23, 10:11, 19.
    - a. 은혜는 우리가 누린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 — 요 1:14, 16-17, 계 22:21.
    - b. 우리는 사람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 — 히 10:29하, 갈 6:18, 빌 4:23, 몬 25, 딤후 4:22.
    - c.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 행 20:32, 골 3:16, 비교 램 15:16.
    - d. 우리는 하나라는 터 위에서 성도들과 집회할 때,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생명의 은혜로 체험한다 — 시 133:3, 벧전 3:7, 행 4:33, 11:23.
    - e. 우리는 고난과 시련 한가운데서 주님을, 증가하며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우리의 은혜로 체험할 수 있다 — 고후 12:9.
    - f.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분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 — 고전 15:10, 58, 3:10, 12상.
    - g. 우리는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힘과 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들 서로에게 올바를 수 있다. 객관적인 의는 은혜를 가져오고, 은혜는 주관적인 의를 산출한다 — 히 11:7, 롬 5:17, 21.
- C.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계시, 곧 방주를 건조하는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대를 종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는 길이었다. 노아의 일은 시대를 바꾸는 일이었다 — 고전 2:9, 고후 6:1, 마 16:18, 고전 3:12.
1. 그리스도의 예표인 방주는(벧전 3:20-21) 다만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새사람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의 예표이기도 하다(마 16:18, 고전 12:12, 엡 2:15-16, 골 3:10-11, 계 21:2).

2. 방주를 건조하는 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체험 안에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이다(고전 12:12, 엡 4:11-16).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고, 새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빌 2:12-16, 히 11:7, 마 24:37-39, 눅 17:26-27).

Ⅲ.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산물은 하나님의 시(詩)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영원토록 공개적으로 전시될 것이다 — 엡 2:7-10, 벧후 3:13, 계 22:21.